

## Galleries Art Fair 2026 | PRESS RELEASE

2026년 4월 8일 – 2026년 4월 12일

Galleries Art Fair– COEX HALL C, D, Seoul

### Galleries Art Fair \_ Booth C49

4월 8일 15:00 – 20:00 (VIP & Press Preview)

4월 9일 – 11일 11:00 – 19:30 (Public Access)

4월 12일 11:00 – 18:00 (Preview / Public Access)

조현화랑은 오는 4월 8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올해로 44회를 맞이하는 화랑미술제에 참가한다. 이번 화랑미술제에서 조현화랑은 김종학, 이배, 김택상, 조종성, 안지산을 통해 한국 미술의 세대적 흐름을 조망한다.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 하이 뮤지엄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종학은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색채를 바탕으로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회화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로, 설악산의 사계와 야생화를 주요 모티프로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화랑미술제에서는 핑크색의 생동적인 색감과 마티에르가 돋보이는 Untitled (2022)를 선보인다. 강렬한 색채와 두터운 물성은 설악의 야생화를 힘있게 그려내며 기운생동의 회화적 에너지를 드러낸다. 작가는 오는 9월 미국 피닉스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4월 6일 뮤지엄 산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이배는 30여 년간 숲이라는 재료를 통해 삶과 죽음, 순환의 개념을 탐구해온 작가로, 숲의 물성과 행위성을 기반으로 회화와 조각, 설치를 넘나드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화랑미술제에서는 절단한 숲의 파편을 집성해 물질성을 강조한 Landscape 과 더불어 브러시 스트로크 조각을 함께 선보인다. 일필휘지의 획을 입체화한 조각은 회화적 제스처를 공간 속 동적 에너지로 확장하며, 숲에서 비롯된 순환적 자연성과 작가의 행위성이 결합된 조형 언어를 드러낸다.

최근 Frieze London과 Art SG에서 호평을 받은 김택상은 '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색의 번짐과 침착, 층위의 축적을 실험해온 작가로, 최소한의 개입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화면에 드러내는 수행적 회화를 구축해왔다. 이번 화랑미술제에서는 2026년 신작 Breathing light-Flow 26-13 (2026)을 선보인다. 깊은 균청의 색 입자는 물의 흐름과 자연의 에너지를 반영하며, 반복적으로 쌓인 층위 속에서 빛의 산란과 깊이를 형성한다. 물 속에서 가라앉은 입자의 심연과 구조적 색채의 진동을 드러내는 화면은 자연과 회화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가의 담화(淡畵) 세계를 보여준다.

조종성은 전통 산수화의 이동 시점과 농담의 표현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가다. 원형 캔버스에 배접된 From Stroke 시리즈는 구름, 꽃나무, 새 등 사군자의 요소가 결합된 산수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힘있는 스트로크를 강조한다. 중첩된 시점으로 구성된 화면은 한국 산수화 특유의 생동감을 드러내며, 원형 캔버스는 원경과 근경이 공존하는 공간감을 극대화한다. 이는 회화와 액자의 경계를 확장하며 관람자에게 독특한 관상 시점을 제시한다. 안지산은 삶과 죽음의 경계와 인간 존재의 불안을 내러티브 콜라주 방식으로 시각화해온 작가다. 사건의 주인공과 목격자의 시점을 넘나드는 영화적 연출을 통해 현실과 허구가 교차하는 장면을 구성한다. 이번 화랑미술제에서 선보이는 비를 태워라 010 (Burn The Rain) (2024)은 비를 맞으며 기타를 든 역동적 인물을 중심으로 긴장감 있는 상황을 연출한 작품이다. 극적인 조명과 서사적 장면 구성은 감정의 순간을 강조하며 작가 특유의 영화적 회화 세계를 드러낸다. 작가는 4월 말 도쿄 토미오 코야마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의 표기된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화질 이미지 연결\]](#)

## Galleries Art Fair 2026

김종학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46-kim-chong-hak/overview/>

특정한 대상이나 조형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김종학 작가는 꽃의 화가로 불린다. 자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작품의 주제로 삼는다. 이름 모를 곤충들과 새, 야생화들이 자신을 기쁘게 해준다고 말하는 작가는 시간이 날 때면 그것들과 조우하고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은 후 작업실로 돌아와 캔버스에 옮긴다.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기 보다는 작가만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 추상이 뒷받침된 구상의 방식으로 재탄생 시킨다. 김종학은 1980년대부터 설악산의 자연을 그리기 시작했다. 설악산은 계절마다 다른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계절별 특성이 뚜렷하다. 산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작가에게 계절의 색채를 연구하고 작품화 한 시도는 어쩌면 당연하다. 김종학 작가는 1964년 첫 개인전을 신문회관 화랑에서 열었고, 1965년 제 5회 파리비엔날레에 작품을 출품했다. 설악동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구상 계열의 작품에 몰입하기 시작한 이후, 1985년 원화랑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미술관 및 갤러리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201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회고전과 2018년에는 일본 도쿄의 토미오코야마 갤러리와 프랑스 파리 기메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9년 프랑스 파리의 페로탕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2020년에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의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다. 그의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리움삼성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동양미술박물관-기메(파리)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로 미국 애틀랜타 하이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Untitled***, 2022

Acrylic on canvas

130.3 × 97 cm

이 배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50-lee-bae/overview/>

이 배 작가는 30 여년 동안 솟이라는 재료와 흑백의 서체적 추상을 통해 한국 회화를 국제무대에 선보이고 있다. 1989 년 도블 이후 서양 미술재료 대신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재료인 솟을 작품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작품에는 솟이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 순환과 나눔 등의 태생적 관념 위에 작가 특유의 예술적 상상력이 더해진다. 작가는 솟을 이용해 드로잉, 캔버스, 설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해오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왔다. 캔버스 위에 절단한 솟 조각들을 뽁뽁하게 놓고 접합한 후 표면을 연마해낸 이슈드푸(issu du feu), 솟가루를 짓이겨 미디엄을 사용해 화면에 두껍게 안착시킨 풍경(Landscape), 목탄에서 추출한 검은 안료로 캔버스 위에 형태를 그리고 밀랍 같은 두꺼운 재료를 여러 번 덮은 작업인 아크릴미디움(Acrylic medium), 솟가루가 섞인 먹물로 다양한 형태의 붓질 그대로를 보여주는 붓질(Brushstroke), 솟 자체 또는 브론즈로 보여주는 조각 시리즈 등이 있다. 그는 솟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안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작가는 베니스 비엔날레, 뉴욕 록펠러 센터 채널 가든, 프랑스 기메 미술관, 페르네브랑카 파운데이션, 대구미술관,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베이징 투데이 아트미술관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2000 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고, 이후 2009 파리 한국문화원 작가상, 2013 년 한국미술비평가협회 작가상, 2018 년 프랑스 문화예술 훈장 기사장을 받았으며, 2023 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현재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마그파운데이션, 프랑스 파리 기메 박물관, 스페인 브리바도 알레그로 재단, 바루 재단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

Johyun Gallery



*Landscape b-2*, 2003

Charcoal on canvas

162 x 130 cm

김택상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76-kim-taek-sang/overview/>

김택상은 30여 년에 걸쳐 '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색의 번짐과 침착, 겹침을 실험해온 작가다. 바닥에 눕힌 캔버스 위에 극소량의 안료를 푼 물을 붓고 말리는 반복적인 작업은 수행적이면서도 치유적인 '보살핌의 미학'을 드러낸다. 수십 차례의 층위를 쌓아가는 행위는 화면에 미세한 간극을 만들고, 빛을 산란시켜 깊이와 밀도를 부여한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그려낸 듯 은은하고 담백한 색감을 띤 그의 회화에 대해 작가는 '맑을 담' 자를 써서 '담화(淡畵)'라 명명한다.

1990년대 초 정치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업에서 출발한 그는, 옐로스톤 화산 분화구의 물빛에 매혹되며 예술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후 자연의 구조—물, 공기, 빛, 중력—를 작업실로 끌어들이며 자신만의 조형 방식을 구축하며 물질성과 감각, 개념과 자연을 잇는 회화 세계를 펼쳐왔다. 눈에 띄는 대비보다 분간하기 어려운 유사성과 떨림, 그리고 빛의 진동을 담은 그의 회화는 단색화의 계보 속에서 논의되면서도, 자연과 인간, 매체와 인식의 관계를 섬세하게 탐색해온 독자적인 사유의 여정을 보여준다.

작가는 중앙대학교 회화과에서 학사를,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에서 석사를 마쳤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Johyun Gallery



***Breathing light-Flow 26-13, 2026***

Water Acrylic on canvas

45 x 45 cm

조종성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42-jo-jong-sung/overview/>

조종성 작가는 한지와 먹을 이용해 하나의 고정된 시점이 아닌 다양한 시점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묘미가 숨어있는 풍경을 그린다. 전통 산수화의 조밀한 농묵과 옛 선조들이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전통 산수화의 부분 이미지들을 편집 또는 콜라주하여, 산수화가 지닌 이동 시점의 다양한 각도를 한 화면에 공존시키는 방식으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산수화를 재창조한다. 치밀하게 고안된 숨겨진 시점은 관람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동참시켜 보는 이의 상상력과 지각작용을 일으킨다. 부산에서 태어나 2003년 동아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작가는 2007년 금호영 아티스트에 선정되어 이듬해 2008년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14년 조현화랑에서 개인전과 2015년 세움아트스페이스, 2016년 일본 도쿄 SH Art Project 까지 연이은 개인전을 치렀으며, 전라남도에서 2017년부터 시작한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 우양미술관, 금호미술관 등의 주요 그룹전에도 참여했다. 2015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 출품되어 해외 컬렉터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홍콩 크리스티 갤러리에서 김환기, 박서보, 정상화, 윤형근, 이배 등과 함께 '한국미술의 서사 'A NARRATIVE OF KOREAN ART'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그의 작품은 하나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Johyun Gallery



***From Stroke***, 2025

Ink, pigment on hanji (Korean paper)

ø100 x 4.8 cm

# Johyun Gallery

안지산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29-ahn-jisan/overview/>

안지산 작가는 인간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철학적 주제인 삶과 죽음의 경계와 그로인한 불안에 대해 끝없이 연구하며 시각화한다.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들에 대해 재해석하고, 이를 재현 또는 연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내러티브 콜라주 작업을 거친다. 작가는 본 사건의 주인공 또는 목격자가 되어 다양한 시점에서 재해석 하게 되는데, 현장 속에 자신의 모습을 대입하기도, 매우 먼 거리에서 바라본 현장의 모습을 마치 목격자 입장에서 묘사하기도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 아라리오 갤러리, 암스테르담 갤러리 바르트, 자하 박물관 등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사비나 박물관, 쿤스트할레 뮌스터, 대구미술관, 아르코 아트센터, 라이덴 갤러리 룸크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암스테르담의 리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2014년에 "Buning Brongers Prijsen"을 수상한 바 있다.

Johyun Gallery



**비를태워라 010 (Burn The Rain), 2024**

Oil on canvas

116.8 x 91 cm

# Johyun Gallery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저작권 정보와 조현화랑 제공을 함께 명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전시기간 내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이 윤 희

M 010-3550-1170

E [press@johyungallery.com](mailto:press@johyungallery.com)